

번역텍스트 제작의 사회적 조건과 제도적 번역자의 역할

강 지 혜
(이주대)

1. 서론

번역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조명된 번역 관련 현상 중 하나는 번역텍스트 제작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번역자가 스스로 선정한 텍스트를 단독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번역작업 수행의 양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그러한 방식 이외에도 각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기업의 번역전담 부서, 소규모 번역회사, 번역조합 등 각종 제도적 또는 비제도적 상황에서 번역텍스트를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Pym 1998). 특히 제도적 조건에서의 번역텍스트 제작은 유럽 제국, 캐나다와 같은 이중언어 또는 다중언어사용국가, 국제연합(United Nations),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같은 국제기구 등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번역텍스트 제작 형태이다.

고대 로마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번역에 대한 기록 및 논의에서 번역이 주로 개인적·주관적 행위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번역텍스트

트를 제도적 상황에서 공동작업의 결과물로 고찰한다는 것은 번역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물론 기원전 3세기 『70인역(Septuagint)』을 시작으로 수세기동안 계속된 성서 번역을 비롯하여, 특정 기관에서 공동 작업으로 번역텍스트를 만든 사례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20세기까지 번역텍스트는 주로 번역자 단독으로 수행한 작업의 결과물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고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번역텍스트의 주류를 형성한 철학·문학 서적을 비롯한 인문학 서적은 주로 개별 번역자의 번역 작업을 통하여 생성되었고, 이러한 번역 행위의 개별성·개인성 때문에 키케로(Cicero), 히에로니무스(제롬, St. Jerome)에서 돌레(Etienne Dolet), 드라이든(John Dryden) 등을 거쳐 비교적 최근 뉴마크(Peter Newmark) 등에 이르기까지 번역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었던 문제는 번역 방법의 문제, 번역과 텍스트에 대한 인식의 문제, 번역자의 언어 사용의 문제, 번역자의 의사결정 문제 등 개인적 차원의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번역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세계화·국제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종이 이외에도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가 생활 속에 더 깊이 파고들면서 번역되어야 하는 텍스트의 종류와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정보 전달 기능의 텍스트가 전세계 번역량의 90%를 차지하게 되었다(Delisle 1998: 47). 산업번역 분야와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번역의 속도가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Bowker 2002; Pym 2001). 즉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원천텍스트를 번역하여 번역텍스트를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출판사, 언론사, 일반 기업체,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 다양한 기관에서는 여러 번역자, 감수자, 에디터 등을 번역텍스트 제작 작업에 투입하여 많은 양의 텍스트를 빠른 시간 안에 번역하는, 이른바 기관에서 번역텍스트의 공동 제작이라는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번역텍스트 제작 방식은 특정 분야 지식을 습득한 전문 번역 인력의 확보, 신속한 업무 처리 등 번역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번역텍스트의 품질을 담보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 조건에서 번역텍스트를 제작한다는 것은 단독으로 번역 관련 행위를 수행하는 것과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우선 번역 대상 텍스트 선정 문제부터

번역수행, 편집, 최종 번역텍스트의 제작 및 출판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조직적·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단계적·관여적으로 이루어진다. 번역텍스트가 최종적으로 제작되기까지 번역자가 개인적·주관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들도 많지만, 번역자가 기관 내 번역 관련 역할을 맡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거나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는 기관에서의 번역텍스트 제작의 사회적 조건과 제도적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자의 역할 및 지위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번역텍스트 제작 관련자들의 역할과 참여구조, 번역텍스트의 제작 절차 및 과정, 번역 수행 시 개입의 주체 및 성격, 첨단 기술의 발달 등의 관점에서 제도적 번역과 번역자 작업 수행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다양한 제도적 번역텍스트 제작의 사례들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각종 상황 속에서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번역의 역사성을 추적해 보고, 오늘날 제도적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제도적 특성, 절차, 번역 관련자들의 참여구조, 조직 환경 등이 번역자의 작업 양상, 번역자의 자기인식, 번역텍스트의 구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탐색해 보기로 하겠다.

2. 번역의 개념과 제도적 조건에서의 번역텍스트 제작

“번역”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cf. Toury 1985). 그러나 “번역”이란 용어의 쓰임을 살펴보면, “번역”은 한 나라 말로 표현된 텍스트를 다른 나라 말로 전환하는 “과정” 또는 “결과”를 지시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Shuttleworth and Cowie 1997; Hervey and Higgins 1992). 심지어 “번역에서 오역이 많이 발견된다,” “한국 출판 번역의 현황,” “이글은 엄격히 말해서 번역이 아니다”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과정(행위)”을 뜻하는지, “결과물”을 뜻하는 그 경계가 매우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문제는 “과정” 또는 “행위”로서 번역을 수행하는 주체가 “번역자”이기 때문에, 번역 행위의 결과물인 번역텍스트도 “당연히” 번역

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말로 된 텍스트를 다른 나라 말로 전환하는 당사자가 번역자이므로, 전환과정의 결과로 생산되는 번역텍스트, 그리고 그 번역텍스트에서 발견되는 번역 상의 특징, 오류 등이 전적으로 번역자의 문제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번역텍스트의 생성 과정이 번역 대상 텍스트의 선정과 번역 의뢰에서부터 직접적인 번역 작업 수행, 번역텍스트 감수 및 편집, 번역텍스트 최종본 납품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라고 본다면, 오늘날 번역자가 단독으로 전 과정을 담당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오늘날 행해지는 번역의 참여 구조를 조명한 스코포스 이론(*skopos theory*)에서도 모든 번역 행위가 의도적·목표지향적이며, 번역 목표의 달성을 위해 번역 의뢰인, 번역자, 원천텍스트 저자, 번역텍스트 독자 등이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번역텍스트가 생산된다고 설명한다(Nord 1997: 20-22).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번역텍스트가 여러 번역 관련자들의 참여 속에서 제작된다고 하더라도, 비제도적 조건에서 번역자가 자신이 원하는 텍스트를 자율적으로 번역하는 것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 기관이 제도화한 참여구조 속에서 번역자가 번역텍스트를 제작하는 것은 번역 과정과 결과에 있어 다를 수밖에 없다.

제도적 맥락에서 번역텍스트를 제작한다는 것도 여러 과정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번역학자들도 제도적 번역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제도적 번역이라는 범주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할 뿐이다. 일례로 모섭(Brian Mossop 1990: 342)에서는 정부, 기업체, 국제기구, 종교기관, 언론기관, 출판사 등을 비롯한 각종 기관에 번역자가 소속되어 번역 관련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예로 제시한다. 물론 모든 번역 행위가 사회와 유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고 필연적으로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허먼스(Theo Hermans)는 “제도로서의 번역”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바 있다(1997: 3). 그러나 본 논문에서 ‘기관에서의 번역텍스트 제작’이라 함은, 특정 기관 소속 번역자 또는 그 기관의 의뢰로 고정적으로 번역 작업을 맡는 번역자가 원천텍스트를 번역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그 기관에서 번역텍스트가 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제도적 번역에서 중요한 것은, 번역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기관에서의 번역자는 기관 소속 구성원 사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인지, 개념, 행위의 도식 혹은 내면화된 구조의 체계(cf. Bourdieu 1977)

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유럽 연합에서의 번역에 대해 기술한 Wagner 외(2002:56)에서는 이런 ‘내면화된 구조의 체계’를 “전례(과거 번역자들의 유령)”라는 표현으로 기술하고, 그런 “전례”를 번역의 주체인 “번역자,” “감수자,” “법률 자문 담당,” 그리고 “유럽연합의 정치인, 관료 등 기타 관련자”와 같은 선상에서, 번역텍스트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기관에서의 번역텍스트 제작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223개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번역에 대해 조사한 이승재 외(2001: 84-85)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번역 수요가 발생했을 때, 기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72.6%로, 기관 내 인력을 활용하여 번역텍스트를 제작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번역팀을 구성할 경우, 구성 방법은 [번역자 + 내부직원](42.9%), [번역자 + 외국인 감수자 + 해당분야 전문가](28.6%), [번역자 + 외국인 감수자](10.7%), [번역자 + 해당 분야 전문가(내국인)](7.1), [번역자 + 내부직원 + 외국인 감수자](3.6%), 번역자 단독(7.1%) 등으로 나타난다. 즉 공동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번역자가 기관의 담당 직원, 감수자, 해당 분야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작업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외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관에서 번역텍스트가 제작될 때도 “공동결정”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기관이 주체가 되어 번역텍스트를 제작할 경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기관에서 정한 번역 지침과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 번역 지침과 규칙이 있으나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번역 지침이나 규칙이 일체 없는 경우 등 기관별, 사례별로 각기 다른 조건에서 번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제도적 조건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는 개별적 번역과 달리, 제도적 기관에서 번역텍스트가 제작될 때는 번역텍스트 제작의 측면이 번역자 개인의 의사결정 차원을 넘어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도적 차원에서 번역텍스트가 제작될 경우, 번역 대상 텍스트의 선정, 번역 수행 과정 및 절차, 감수 및 편집 등은 번역자가 아닌 다른 제작 주체에 의해 흔히 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모섭은 제도적 번역자들이 번역을 수행할 때 기관의 목표 및 조직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특정 기관 소속의 번역자에게 중립적 번역 전략이란 없다(Mossop 1990: 350)”고 주장한

다. 캐나다 연방정부 번역국(Canadian Federal Government Translation Bureau)에서 제작된 번역텍스트가 캐나다 정부의 언어정책, 그리고 언어정책을 기본 골격으로 한 번역원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한 모셔은, 오늘날 기관에서 행해지는 번역이 “기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원천텍스트의 의미가 보존된다(1990: 345)”고 지적한다.

3. 기관에서의 번역텍스트 제작: 성격과 특징

오늘날 중앙정부, 국영기업체, 지자체, 연구기관 등을 비롯한 공공 기관은 물론, 언론기관, 출판사, 민간기업체, 민간 연구기관, 각종 단체, 국제기구, 종교 기관 등 다양한 제도적 상황에서 번역텍스트가 제작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번역 대상 텍스트의 선정, 번역자의 선정, 번역텍스트 제작의 과정 및 절차, 번역 기관의 이념 및 목적 등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제도적 조건에서의 번역텍스트 제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3.1 번역 대상 텍스트의 선정

오랫동안 번역학자들은 번역된 텍스트를 원천텍스트와 대조, 분석하는 연구를 시행하였고, 그런 연구는 번역학에서 연구대상을 이미 번역된 텍스트로 자연스럽게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어떤 서적은 번역이 되고, 또 어떤 서적은 번역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참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번역학계에서 일어난 “문화적 전환”으로 번역학 연구의 주제 및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면서 르페베르(Andre Lefevere), 베누티(Lawrence Venuti), 체이핏츠(Eric Cheyfitz) 등은 번역 대상 텍스트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베누티는 이탈리아에서 출판되는 서적 중 번역 서적이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번역서적의 대부분이 영어에서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서적이라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대형 출판사들이 번역을 통해 미국의 문화 및 가치체계의 세계적 팽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Venuti 1995: 12-15). 최근 비평적·문화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번역학자들은,

식민주의,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등에 맞서 싸우기 위해 특정 텍스트가 번역된다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Cheyfitz 1991; Robinson 1999; Kadish and Massardier-Kenney 1994).

번역 대상 텍스트 선정의 문제는 특히 기관에서 번역텍스트가 제작되는 맥락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래드미랄(Ladmiral 1979: 97-98)은 어떤 서적이 번역되느냐의 문제는 그 서적의 번역이 누구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느냐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사 등 영·미 대형 출판사에서의 프랑스어 서적 번역 여부에 대한 결정은 철저하게 상업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La prophétie antinuclaire*와 같은 “좋은” 작품이 번역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다. 국내에서 행해지는 출판번역에 대한 연구에서도 번역 대상 텍스트 선정 문제가 출판사의 수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출판사 편집인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국내 출판 번역 실태에 대해 연구한 이상원(2005: 26-27)에서는 번역 대상 텍스트 선정은 편집인과 출판사 사장이 주관하며 때로는 영업 담당자도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보고한다. 또한 번역 대상 텍스트 선정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항은 상업성, 즉 시장에서의 판매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번역 대상 텍스트의 선정과 기관의 이해관계를 더욱 거시적인 틀에서 언급한 투어리(Gideon Toury)는, 번역 대상 텍스트의 선정 문제는 한 국가의 번역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며, 텍스트 선정 여부는 권력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1980). 역사적으로 19세기 초 공산주의 혁명 이후 구소련에서 혁명 이념의 확산을 위해 단행한 번역 사업도 제도적 권력이 특정 텍스트의 번역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려고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3.2 번역자의 선정

텍스트는 누가 번역하며, 번역자 선정에 대한 결정권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는 번역 관련 참여구조에서 권력의 문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번역자가 스스로 선택한 텍스트를 단독으로 번역할 경우에는 번역텍스트 제작의 주체가 번역자가 되기에 번역자 선정이라는 문제 자체가 없겠지만, 번역행위가 기관에서 복잡한 번역텍스트 제작 절차 중 한 단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번역

텍스트 제작의 주체가 기관이 되며, 번역자 선정의 문제는 기관의 이해관계 그리고 기관이 선호하는 번역 방법 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상원(2005: 27-28)에서는 국내 출판사에서 서적 번역을 담당할 번역자를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편집인의 추천과 출판사 경영진의 승인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번역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번역자의 경력이라고 보고한다. 또한 선정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편집인은 번역 발주 시 번역자에게 일반적인 번역 방향, 유의사항, 문체 등에 대한 다양한 번역 지침 사항을 전달한다고 전한다. 일례로 편집인은 번역텍스트에 대한 향후 마케팅 관련 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번역자에게 알려주고 이런 계획에 부응하는 번역을 당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관에서의 번역자 선정 문제는 번역자의 지위, 권력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베누티는 번역자와 번역자를 고용하는 기관 간의 관계 그리고 번역자와 원천텍스트 저자 간의 관계는 사회적·법적으로 불평등하며, 그런 번역자의 처우는 번역에서 나타나는 “번역자의 비가시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Venuti 1998). 물론 지명도 높은 번역자는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제도적 조건에서 번역을 수행하는 다수의 번역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번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열린 책들’ 편집부(2000)에서 번역자 총 68인을 대상으로 한국 번역 출판의 문제점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낮은 번역료’와 ‘번역과 번역자에 대한 인식’이 2위와 4위를 각각 차지하였으며, 이는 모두 번역자의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낮은 번역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번역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최소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지급해야 한다,’ ‘노력에 비해 보수가 너무 낮다,’ ‘매질과 인세 방식을 혼합해야 한다’ 등이 언급되었고, ‘번역과 번역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번역 작업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번역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사회적, 전문적, 경제적 관점에서 번역자들의 자기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명도 있는 국내 번역자로는 『미메시스 번역서 가이드북(1999)』의 ‘출판인들이 뽑은 한국을 대표하는 번역가들’ 목록에서 수위를 차지하면서 현재까지 100권 이상의 번역서를 출간한 이윤기, 김석희, 안정효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3.3 번역텍스트 제작의 과정 및 절차

번역에서 언어 표현 선택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번역자의 의사결정 차원의 문제지만, 기관에서의 번역텍스트 제작 시, 구체적인 번역 표현의 선택은 흔히 제도적 텍스트 제작 과정 및 절차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유럽연합의 유럽집행위원회 번역국(Translation Service of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Union)에서 제작되는 번역텍스트는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그러한 텍스트 상의 특징은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번역텍스트 제작 절차의 귀결이라고 일부 번역학자들은 설명한다(Koskinen 2000; Pym 2001). 유럽연합에서는 원천텍스트가 여러 차례 수정되거나 여러 저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번역텍스트 제작이 직선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비선형적, 집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는 원천텍스트 한 종류를 번역자 여러 명이 번역한 후 또 다른 사람이 감수하는 방식으로 번역텍스트 제작 작업이 진행되지만, 원천텍스트가 여러 차례 수정될 경우에는 번역자가 원천텍스트를 번역한 후 또 다시 번역을 해야 한다. 또한 같은 원천텍스트를 유럽 연합의 다른 번역 관련 기구에서 각기 다른 번역자가 번역하는 등 번역 과정이 복잡하고 다단계적이다.

텍스트의 제작 과정 중 특히 감수 및 편집 과정은 번역텍스트 최종본 구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중앙부처, 공사·공단, 지자체, 연구기관, 단체·협회 등 223개 공공기관에 대해 조사한 이승재 외(2001: 105)에서 번역 관련 작업을 번역과 감수로 구분할 때, 번역된 텍스트가 감수를 받는 경우(86%)가 그렇지 않은 경우(14%)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수 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체 감수가 45.7%, 외부 감수가 22.2%로 기관의 직원이 번역텍스트를 감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판번역에서의 편집 및 감수 과정에 대한 이상원(2005: 33)의 연구에서는 편집인이 평균적으로 네 차례의 교정 및 교열 작업을 진행하면서 번역텍스트를 수정하며 번역 과정에서나 편집 과정에서 번역자와 활발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판 번역의 결과물인 번역서는 번역자와 편집인의 공동 작업물이라고 말한다. 한편 출판사 편집인의 역할에 대해 페르니에(Pergnier 1990: 219)에서는 편집인은 번역자가 번역한 텍스트를 “단장하고,” “톡톡 튀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먼데이(Munday)는 출판사 편집인들과의 심층면접 결과, 편집인 또는 에디터는 원천어에 능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번역서가 도착어 문화권 독자들에게 의해 얼마나 "쉽게" 읽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감수 및 편집의 주체, 방향 및 범위에 따라 번역자가 번역한 텍스트가 수정되는 방식도 다양하다. 번역텍스트 구성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 에디터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사례는 『뉴스위크 한국판』의 번역텍스트 제작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Kang 2004b:35). 번역 시사잡지인 『뉴스위크 한국판』에서는 번역텍스트가 매우 체계적으로 제작된다. 일차번역을 담당하는 ‘리라이터’가 원천텍스트인 『국제뉴스』(Newsweek International) 지의 기사를 번역하면 감수를 맡은 ‘네이티브 체커(Native Checker)’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오역과 난해한 부분을 원천텍스트와 대조 및 확인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그 다음 과정은 『뉴스위크 한국판』의 주간(主幹)이 ‘톱체커(top checker)’라는 역할을 맡아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오역과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해 운문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번역텍스트 제작 과정에서 리라이터와 톱체커의 역할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은, 리라이터는 원천텍스트의 내용을 가감 없이 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 반면, 톱체커는 번역자가 번역한 텍스트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다. 신문 또는 잡지 기사 제작시 지면 제약으로 인해 기사 내용이 일부 생략 또는 삭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뉴스위크 한국판』의 원천텍스트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텍스트의 양적 팽창을 해결하는 주체가 번역자가 아닌 톱체커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이다. 어떤 내용이 생략 또는 삭제되느냐에 따라 원천텍스트에서 제시된 사건 및 경험이 번역텍스트에서는 다르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 및 한국의 반미감정을 다룬 『뉴스위크 한국판』 기사의 번역 문제를 연구한 강지혜(2004a: 19-22)에서는 원천텍스트에 비해 번역텍스트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완화되어 제시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반적인 고정관념으로 제시된 한국(인)의 부정적인 특징이 번역텍스트에서는 소수 한국인의 특징으로 기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 및 묘사가 번역텍스트에서는 생략되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원천텍스트의 번역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의미 전환 중 특히 생략에서 비롯되는 의미 전환은 톱체커의 역할과 상관관

계가 있으며, 이는 국내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판매 부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기관의 수익성에 대한 고려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기관에서 제도화한 번역텍스트 제작 절차, 특히 감수 및 편집의 주체 및 내용은 번역텍스트 최종본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4 번역기관의 이념 및 목적

번역자가 비제도적인 조건에서 개별적으로 번역 대상 텍스트를 선정하여 번역을 수행할 때 번역자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가장 적절한 번역 방법을 찾아 번역텍스트를 구성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조건에서 번역이 이루어질 때는, 번역을 수행하는 목적이 기관의 이념 또는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러한 제도적인 틀 속에서 번역 방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번역텍스트에 사용된 어휘, 구문, 문장, 문체 등이 번역자 개인의 의사결정의 결과물인 경우도 많으나, 번역을 수행하는 기관의 이념 및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도 많다.

일례로 유럽연합의 번역텍스트에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표현 및 구조에서부터 텍스트 구성에 이르기까지 어색한 점들이 많이 발견된다. 트로스버그(Anna Trosborg)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번역텍스트를 “혼성텍스트(hybrid text),” 즉 두 문화권 또는 그 이상의 문화권의 특징들이 하나의 번역텍스트에 복합적으로 구현된 텍스트라고 말한다(Trosborg 1997: 146). 따라서 혼성텍스트에서는 흔히 도착어 문화권의 어법 및 관례에 맞지 않는 표현 및 문체 등이 발견된다. 그런데 코스키넨(Kaisa Koskinen)은 유럽연합의 번역텍스트에서 그런 혼성텍스트의 특징들이 발견되는 데는 유럽 연합의 이념 및 성격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2000: 51). 회원국 간의 호혜평등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언어 간 동등권이 중요시되는 유럽 연합에서는, 언어 간 동등권이 언어다원주의라는 언어정책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언어다원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통역, 번역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문서는 각 회원국 언어로 번역되며, 이로 인해 유럽 연합에서는 막대한 번역 예산이 책정되어 많은 번역 인력이 번역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번역텍스트는 각국 언어로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있다. 언어 간 동등권이라는 이상주의적 개념은 번역 업무

에서 특히 강조되어 심지어 “시각적 등가” 원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즉 원천텍스트와 번역텍스트가 문단 및 문장 수, 제목과 부제의 위치 등에 있어 일치해야 하는 등 두 종류의 텍스트를 놓고 시각적으로 비교해 볼 때 등가성이 표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번역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너무 강조되어, 핀란드어와 같은 유럽 연합에서의 비주류 지위를 가진 언어로 번역된 텍스트는 의사소통적 기능보다 번역이 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중요시되기도 했다. 따라서 코스키넨은, 유럽 연합에서 번역자는 의사소통의 중개인으로 텍스트를 생산하기보다는, 이념의 수호자로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기관에서 제작되는 번역텍스트의 특징들은 번역기관의 이념, 조직환경 및 번역 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4. 제도적 번역의 역사

제도적 맥락에서의 번역텍스트 제작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더욱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역사 속에서도 문화권별로 다양한 제도적 번역의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Baker 1998; 강지혜 2004). 그 중 성서 번역은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역사 속에서 교회 또는 왕이 제도적 번역텍스트 제작의 주체가 되어 성서 번역본을 만든 구체적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제도적·조직적 환경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진 성서 번역 작업에 대한 초기 기록은 기원전 3세기 이집트의 프톨레미 필라델프스(Ptolemy Philadelphus)의 명령에 따라 히브리어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찾을 수 있다(Simon 1995: 163). 70명의 학자가 70일 동안 번역했다고 하여 라틴어로 “70”을 뜻하는 “septuaginta”에서 유래되었다는 이 번역본의 제작 과정이 제도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서 번역에 대한 최초의 언급일 것이다.

제도적 조건에서 공동으로 성서를 번역한 데 대한 더욱 상세한 기록은 『흠정역』(*King James Version: KJV*) 번역에 대한 기술에서 나타난다(Norton 2005; Vance 1993). 1604년 영국왕 제임스 1세의 명령에 따라 성공회와 청교도 성직자 및 평신도로 구성된 54명의 번역자가 착수한 성서 번역 작업은, 히브리어 구약 성서, 그리스어 신약성서, 그리고 10세기 이후 발간된 『틴데일(Tyndale)

성경』를 비롯한 각종 영역(英譯)성서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흠정역』은 왕과 교회의 권위로 통일된 표준역이며, 유려한 문체, 뛰어난 리듬감,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탁월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역으로 알려져 있다.

『흠정역』번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비교적 소상하게 전해지고 있다. 당시 번역텍스트 제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번역자들이 엄격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번역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흠정역』의 번역자 54명은 전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종류의 번역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했다.

- 번역은 원천텍스트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감독성경(Bishop's Bible, 당시 영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던 성서 번역본)』의 내용을 수정사항 없이, 있는 그대로 옮긴다.
- 고유명사는 영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발음하는 방식대로 표기한다.
- 그리스어 단어 "ekklesia(회합, 회중, 공동체)"는 "church(교회)"로 번역한다.
- 특정 히브리어 또는 그리스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외의 주(註)를 일체 달지 않는다.

또한 번역자들은 정교하게 마련된 번역 절차에 따라 번역텍스트를 생성하였다. 흠정역 번역자들의 번역텍스트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 번역작업은 모두 6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각 조에 소속된 번역자는 성서의 동일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번역한 후, 조별 모임을 통해 번역텍스트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별 검토 작업에서는 조의 책임자가 『감독성경』(Bishop's Bible)의 해당 구절을 읽고, 이를 각 조원이 만든 번역텍스트와 대조해 보았다. 조원들은 번역텍스트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자신이 직접 작업한 번역텍스트를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조원이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공동 번역텍스트를 구성하였다.
- 서(書)별 번역 작업이 완료되면 번역텍스트는 다른 조에서 맡아 다시 검

토되었고, 검토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번역이 있을 경우, 해당 번역 텍스트는 왜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초 번역을 담당한 조로 반송되었다.

- 최초로 번역을 담당한 조에서 문제가 제기된 번역텍스트의 지적 사항에 대해 수긍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편집위원회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가장 명망 높은 신학자들에게 의뢰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 조별 번역 작업이 완료된 후, 각 조에서 차출된 번역자 대표 2명이 번역 텍스트를 취합하여 다시 검토 및 감수하는 과정을 거쳤다.
- 끝으로 토마스 빌슨(Thomas Bilson)과 마일스 스미스(Miles Smith)가 최종적으로 편집 작업을 맡았고 최종본을 출판하였다.

흠정역 제작은 제임스 1세의 구체적인 관심과 지휘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완전히 새로운 번역본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기보다는, 『감독성경』, 『틴데일 성경』과 같은 기존의 번역서를 원천텍스트에 근거하여 다시 검토한 후 좋은 번역은 보존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새롭게 번역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정교한 절차, 고정된 역할, 엄격한 규칙에 따라 계층적인 구조 속에서 번역자들은 순환적, 반복적으로 번역 및 감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번역 문제는 소위 “전문가 집단”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5. 기술의 발달과 기관에서의 번역자의 역할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역텍스트 제작의 양상은 오늘날 첨단 기술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첨단정보통신 기술은 번역자의 작업 조건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팩스, 인터넷, 이메일은 번역자가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수품이 되었고, 번역 작업 환경의 정보화 수준은 갈수록 고도화·첨단화하여 번역자는 이제 다양한 정보통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유럽 번역시장에서는 이미 컴퓨터 보조 번역(CAT: Computer-Aided Translation)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트라도스(TRADOS), 데자부(Déjà Vu) 등의 번역 메모리 소프트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번역텍스트 제작 과정에서 신속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용어 및 텍스트의 표준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재화와 서비스를 특정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그 시장의 언어·문화·법률·기술 조건에 맞도록 재화와 서비스를 처리·가공·전환하는 로컬라이제이션 산업이 크게 변창하고 있다. 로컬라이제이션 과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번역에서 번역 메모리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이제 자연스런 작업의 양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으로 인해 번역자, 특히 제도적 맥락에서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자는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뎀(2001)은 국제기구의 예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국제연합과 유럽연합이 창설되던 당시,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이들 국제기구에서도 번역 인력을 중앙집권적인 구조에 편입하여 번역자가 기구 내 번역 전담 부서 소속(in-house translator)으로 번역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첨단 기술의 발달로 전일 근무하는 번역자가 물리적으로 기관에 배치되지 않아도 인터넷을 이용해 외부에서 번역자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곧 비용 절감의 효과로 이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번역 업무의 외주가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국의 증가와 공용어의 증가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번역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가진 번역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그런 환경 속에서 번역 작업 수행 방식이 다양해지는 반면, 번역 부서의 규모는 축소되었다. 뎀(1996, 2001)은 1997년 유럽연합에서 번역에 대한 총수요의 17%를 프리랜스 번역자들이 해결하지만, 이와 같은 번역 작업 외주의 비중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따라서 번역 작업의 형태는 점차적으로 더욱 “분산적(decentralized)”으로 변할 것이고 “원거리번역(teletranslating)”이 프리랜스 번역자의 전형적인 작업 방식이 되리라고 말한다. 즉 프리랜스 번역자들이 프로젝트별, 계약 조건별로 기관을 위해 외부에서 작업을 담당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정 기관에서의 번역텍스트 제작 작업이, 공간적 제약 없이 산재되어 있는 번역자들, 감수자, 에디터 등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면서 번역자의 익명성과 비가시성은 여러 측면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코스키넨은 그러한 제도적

번역자의 역할과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텍스트적 가시성,’ ‘준텍스트적 가시성,’ ‘텍스트외적 가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Koskinen 2000: 99). ‘텍스트적 가시성’은 번역자가 번역텍스트 본문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뜻하는 반면, ‘준텍스트적 가시성’은 번역자가 역자 서문, 주석, 책 표지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 시각, 입장, 해석 등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텍스트외적 가시성’이란 번역자의 전문성이 특정 조직 또는 참여 구조 속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코스키넨은 그러한 유럽연합 소속의 번역자들에게는 세 종류의 가시성이 모두 없다고 단언한다. 오히려 번역텍스트에서 발견되는 목표언어 어법에 맞지 않는 어색한 언어적 표현들을 통해 독자들은 텍스트가 번역되었음을 알게 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7. 결론

체스터만(Andrew Chesterman)은 1980년대 이후의 번역학 연구 동향에 대해 고찰하면서 번역 연구의 대상, 주제, 관점 및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전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번역서 및 번역텍스트 중심의 연구에서 번역자 및 번역 수행 중심 연구로의 전환, 규범주의적 연구에서 기술적(記述的) 연구로의 전환, 그리고 번역에 대한 철학적, 관념적 탐구에서 경험적, 실증적 연구로의 전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번역학 연구 흐름이 변하고 있음을 진단한다(1998: 201). 그런 배경 속에서 특히 번역에 대한 실증적, 경험적 연구 결과물의 증가는 각종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번역이 행해지는 구체적인 양상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양한 관점과 연구 방법론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번역 행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번역이 행해지는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과 조건, 번역 수행에 작용하는 변인, 제약 및 문제점, 각기 다른 목적의식, 인식 체계, 이념적 지향성을 가진 이해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 번역텍스트 독자들의 번역텍스트 수용의 문제, 번역과 문화의 관련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런 연구들을 통해 번역은 추상적, 관념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등가 찾기 작업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속에서 행하는 사회적 과정임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제도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번역텍스트 제작의 성격과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번역텍스트 제작이 언어 전환 또는 텍스트의 문제로만 한정될 수 없고, 번역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번역 대상 텍스트 선정에서 번역텍스트 제작의 과정, 번역 관련자들의 역할, 기관의 이념 및 목적 등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번역텍스트 제작의 제 측면이 총체적으로 제도적 번역자의 작업 방식과 번역의 결과물, 번역자의 지위와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도적 맥락에서의 번역텍스트 제작에 대한 논의는 번역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학부에서 번역 교육의 목적이 번역 현상에 대한 포괄적·체계적 이해 그리고 번역 수행 능력의 배양이라면, 이제는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양상을 고려하여 번역텍스트 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이 번역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번역 교육에서는, 이(異)문화 간 의사소통으로서의 번역, 즉 번역의 목적, 장르, 스타일, 예상 독자의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게 언어와 문화를 매개하는 행위로서의 번역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제는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는 데 요구되는 대인 능력의 함양, 번역의 윤리에 대한 지식 및 이해 등 사회적 행위로서의 번역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 배양을 위한 내용이 번역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교과과정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보다 빠른 속도로 각국 시장이 통합되고 첨단 정보기술이 더욱 고도로 발달하면 번역 대상 텍스트의 양적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번역학자들은 지적한다(Bowker 2002). 특히 사회적인 역할들이 더욱 세분화되고 모든 과정이 복잡해질수록, 번역텍스트 제작 관련 역할도 더욱 세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기술적·사회적 변화는 번역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문학번역과 실용번역의 구분 없이 번역텍스트 제작 과정이 다단계적, 관여적인 구조 속에서 공동의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번역텍스트가 생성되는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조건들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4. 『통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열린책들 편집부. 1999. 『미메시스 번역서 가이드북』. 서울: 열린책들.
- 열린책들 편집부. 2000. 『미메시스 번역서 가이드북』. 서울: 열린책들.
- 이상원. 2005.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 평가 규범 연구』. 서울: 한국의 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재, 성초림, 이계연, 이향, 김영진, 장현주, 이상원, 조상은. 2001. 「국내 공공기관의 번역 현황」. 『번역학 연구』 2:2, 57-107.
- Baker, Mona. (ed.). 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ourdieu, Pierre.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P.
- Bowker, Lynne. 2002. *Computer-Aided Translation Technology: A Practical Introduction*. Ottawa: U of Ottawa P.
- Chesterman, Andrew. 1998. "Causes, Translations, Effects". *Target* 10 (2), 201-230.
- Cheyfitz, Eric. 1991. *The Poetics of Imperialism: Translation and Colonization from The Tempest to Tarzan*. Oxford: Oxford UP.
- Delisle, Jean. 1998. *La Traduction Raisonnee*. Ottawa: Presses de l'universite d'Ottawa.
- Hermans, Theo. 1995. "Translation as Institution." In Mary Snell-Horby, Zuzana Jettmarov and Klaus Kaindl (eds.), *Translation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3-20. Amsterdam: John Benjamins.
- Hervey, Sandor and Ian Higgins. 1992. *Thinking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adish, Doris and Françoise Massardier-Kenney (eds.). 1994. *Translating Slavery: Gender and Sex in French Women's Writing, 1783-1823*. Kent, Ohio: Kent State UP.
- Kang, Ji-Hae. 2004a. "Evaluation of South Korea in News Media Translation: A Critical Perspective". *Discourse and Cognition* 11 (1), 1-30.
- Kang, Ji-Hae. 2004b. "Investing Institutional Translation: Tracing the Productional Picture in Translating Institutions". *Conferenc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6 (1), 23-48.
- Koskinen, Kaisa. 2000. "Institutional Illusions: Translating in the EU Commission." *The Translator* 6 (1), 49-65.
- Ladmiral, Jean-Rene. 1979. *Traduire: Theorems pour la Traduction*. Paris: Payot.
- Lefevre, Andre.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ossop, Brian. 1990. "Translating Institutions and 'Idiomatic' Translation." *Meta* 35 (2), 342-355.
- Munday, Jeremy. 1997. *Systems in Trans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 of Bradford.
- Nord, Christiane.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Norton, David. 2005. *A Textual History of the King James Bible*. Cambridge: Cambridge UP.
- Pergnier, Maurice. 1990. "Comment Denaturer une Traduction," *Meta* 35 (1), 219-225.
- Pym, Anthony. 1998. "On the Market as a Factor in the Training of Translators". <http://www.fut.es/~apym/market.html>.
- Pym, Anthony. 2001. "The Use of Transl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ttp://www.fut.es/~apym/on-line/transinst.html>.
- Robinson, Douglas. 1999. "Nine Theses about Anecdotalism in the Study of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Sherry Simon, Ed., *Culture in*

Transit. "Meta XLIV (2), 402-4.

- Simon, Sherry. 1995. "Translators and the Spread of Religions". In Delisle, Jean and Judith Woodsworth (eds.), *Translators through History*, 159-190. Amsterdam and Philadelphia, P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Shuttleworth, Mark and Moira Cowie.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 Toury, Gideon. 1980. *In Search of a Theory of Translation*. Tel Aviv: Porter Institute.
- Toury, Gideon. 1985. "A Rationale for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In Theo Hermans (ed.),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Studies in Literary Translation*, 16-41. London and Sydney: Croom Helm.
- Trosborg, Anna (ed.). 1997. *Text Typology and Translation*.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Vance, Laurence M. 1993. *A Brief History of English Bible Translations*. Pensacola, FL: Vance Publications.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Wagner, Emma, Svend Bech, Jesus M. Martinez. 2001. *Translating for the European Union Institutions*. Manchester: St. Jerome.

[Abstract]

**The Social Conditions in the Production of Translations
and the Institutional Translator's Role**

Kang Ji-Hae
(Ajou University)

This paper argues that, contrary to the common view of translation as an individual act, translation is an eminently social act, involving complex processes, different roles, interpersonal relations, and power plays. Translation is increasingly being carried out in institutional settings such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 agencies, media firms, religious institutions, and publishing houses. This trend, coupled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various hi-tech translation tools such as translation memory (TM) software and computer-aided translation (CAT) systems, has fundamentally altered the way translation is carried out. This paper interrogates the social aspects in the production of translation in institutional settings in terms of the participation framework involved in text selection, hiring of translators, and processes and procedures of translated text production.

From this survey, I found that more studies on social, cultural, institutional conditions under which translation texts are being produced, are urgently needed.

▶Key Words: institution, translation as a social act, text production procedures, translator visibility, power play

강지혜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영어영문학 전공

jihaekang@ajou.ac.kr

031-219-2815 (직장) / 011-392-6267 (핸드폰)

관심분야: 번역이론, 담화분석, 텍스트언어학, 통역 이론, 통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05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5일

게재확정일: 2005년 12월 10일

K C I